로마자 표기법

왜 개정해야 하나?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로마자 표기법 왜 개정해야 하나?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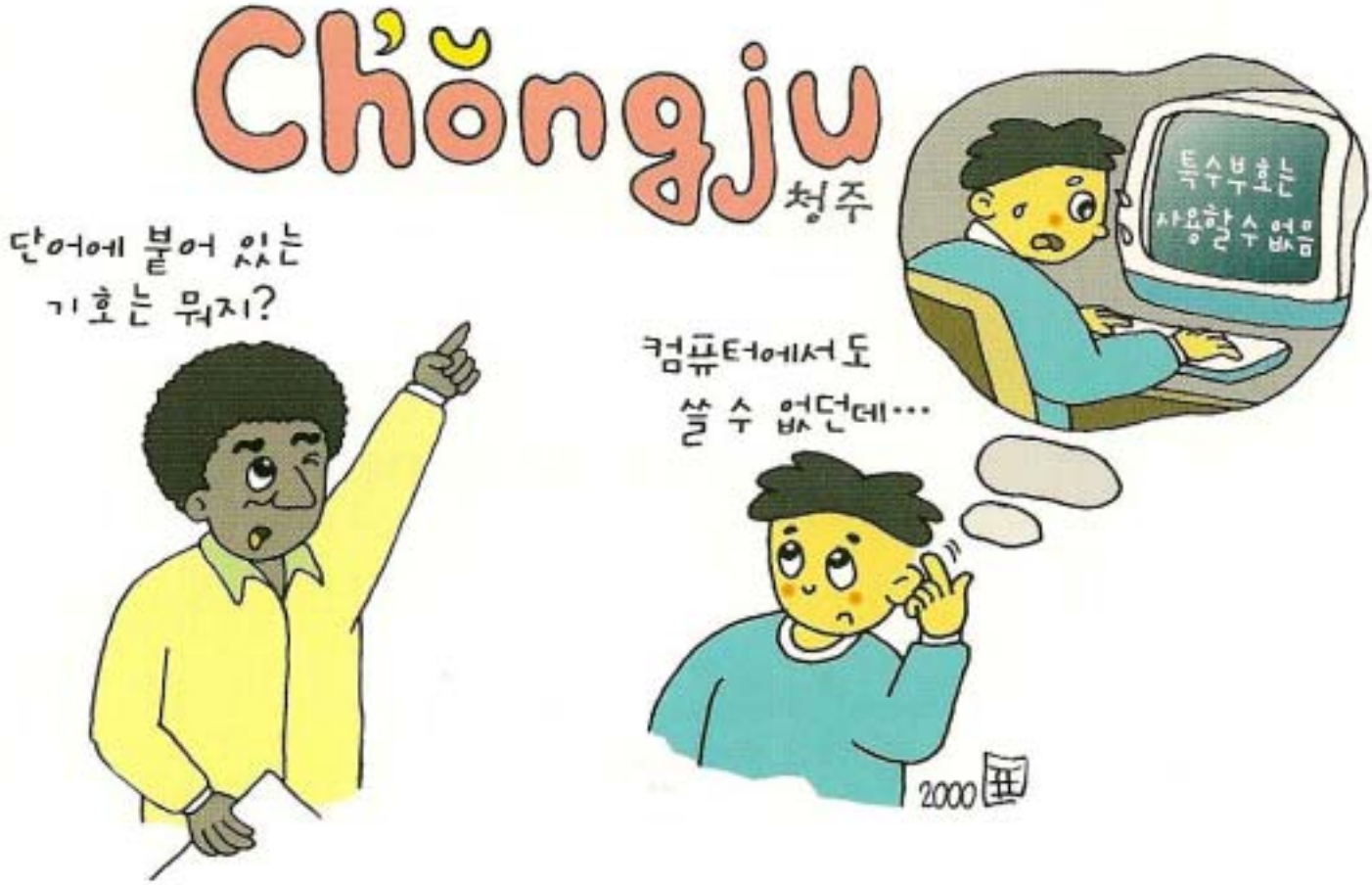
1 왜 개정해야 하나?

2 어떻게 바뀌나?

3 이것이 궁금합니다

4 주요 용례

1 왜 개정해야 하나?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반달표(˘)와 어깻점(')이 있습니다. 반달표(˘)와 어깻점(') 같은 특수 부호는 없어져야 합니다.

- 반달표(˘)와 어깻점(')은 컴퓨터에서 쓰기가 불편하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나 주소를 영문으로 쓸 때 반달표(˘)와 어깻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 외국인들도 반달표(˘)와 어깻점(')이 무슨 기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에 꼭 필요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ㄱ, ㄷ, ㅂ, ㅈ은 k, t, p, ch로 적고 ㅋ, ㅌ, ㅍ, ㅊ은 k', t', p', ch'로 적습니다. 그러나 어깻점은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이 사실상 같아집니다.

-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영**과 **태영**, **정주**와 **청주**를 똑같이 적을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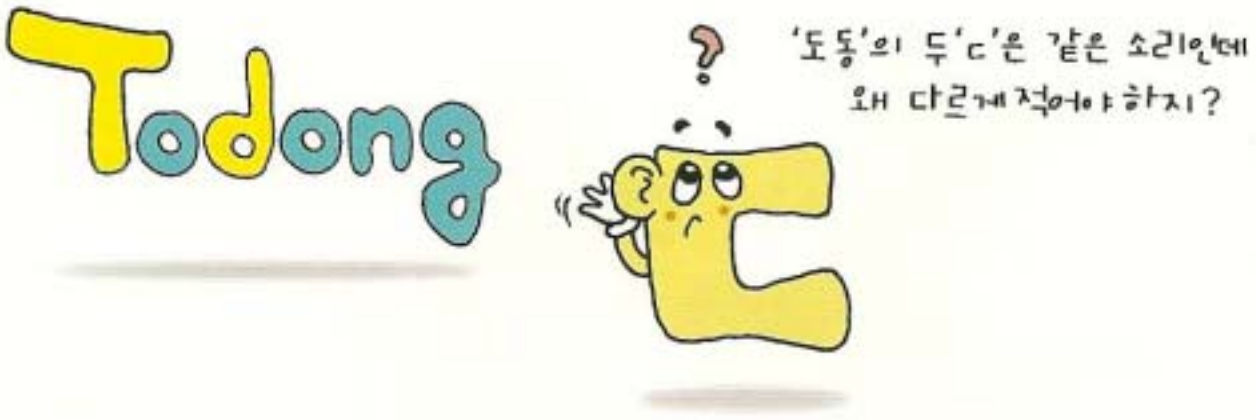
- 현행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외국인이 발음했을 때 ㄱ, ㄷ, ㅂ, ㅈ이 한국인에게는 ㅋ, ㅌ, ㅍ, ㅊ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 Kwangju, Taegu, Pusan, Cheju를 외국인이 읽으면 한국인에게는 **쾅주**, **태구**, **푸산**, **체주**로 들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에서 필요 없는 구별을 합니다.

- 현행 표기법에 따르면 **도동**은 Todong로 표기됩니다. 같은 ㄷ이 단어 첫머리에서는 t이고 뒤에서는 d입니다. 서양인들의 귀에 **도동**의 두 ㄷ이 각각 t와 d로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적습니다.

- 서양인들에게는 **도동**의 두 ㄷ이 다르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같은 소리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같은 ㄷ을 왜 t와 d로 나누어 적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 현행 표기법으로 **대구**는 Taegu, **동대구**는 Tongdaegu가 됩니다. 그 결과 외국인은 **동대구**가 **대구**와 관련이 있는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2 어떻게 바뀌나?

1. 특수 부호가 없어집니다.

2. 특수 부호 대신 사용하기 쉬운 글자로 바뀝니다.

3. ㄱ, ㄷ, ㅂ, ㅈ은 g, d, b, j로 적습니다.

특수 부호가 없어집니다.

-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불편한 반달표(˘)와 어깻점(')을 없앴습니다.
- 개정 시안에서는 로마자에 어떠한 부호도 덧붙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간명해졌습니다.

특수 부호 대신 사용하기 쉬운 글자로 바꿉니다.

- ŏ(어)는 eo로 바꾸고 ŭ(으)는 eu로 바꿉니다.

어	ŏ	→	eo
으	ŭ	→	eu

인천	Inchŏn	→	Incheon
금산	Kŭmsan	→	Geumsan

- k'(ㅋ), t'(ㅌ), p'(ㅍ), ch'(ㅊ)은 k, t, p, ch로 바꿉니다.

ㅋ	k'	→	k
ㅌ	t'	→	t
ㅍ	p'	→	p
ㅊ	ch'	→	ch

태백	T'aebaek	→	Taebaek
포항	P'ohang	→	Pohang
충주	Ch'ungju	→	Chungju

특수 부호 대신 사용하기 쉬운 글자로 바꿉니다.

- ŏ(어)는 eo로 바뀌고 ŭ(으)는 eu로 바뀝니다.

어	ŏ	→	eo
으	ŭ	→	eu

인천	Inchŏn	→	Incheon
금산	Kŭmsan	→	Geumsan

- k'(ㅋ), t'(ㅌ), p'(ㅍ), ch'(ㅊ)은 k, t, p, ch로 바뀝니다.

ㅋ	k'	→	k
ㅌ	t'	→	t
ㅍ	p'	→	p
ㅊ	ch'	→	ch

태백	T'aebaek	→	Taebaek
포항	P'ohang	→	Pohang
충주	Ch'ungju	→	Chungju

ㄱ, ㄷ, ㅂ, ㅈ은 항상 g, d, b, j로 적습니다.

- Gwangju, Daegu, Busan, Jeju를 외국인이 발음하면 한국인에게 **'광주, 대구, 부산, 제주'**에 가깝게 들립니다.

광주	Kwangju	→	Gwangju
대구	Taegu	→	Daegu
부산	Pusan	→	Busan
제주	Cheju	→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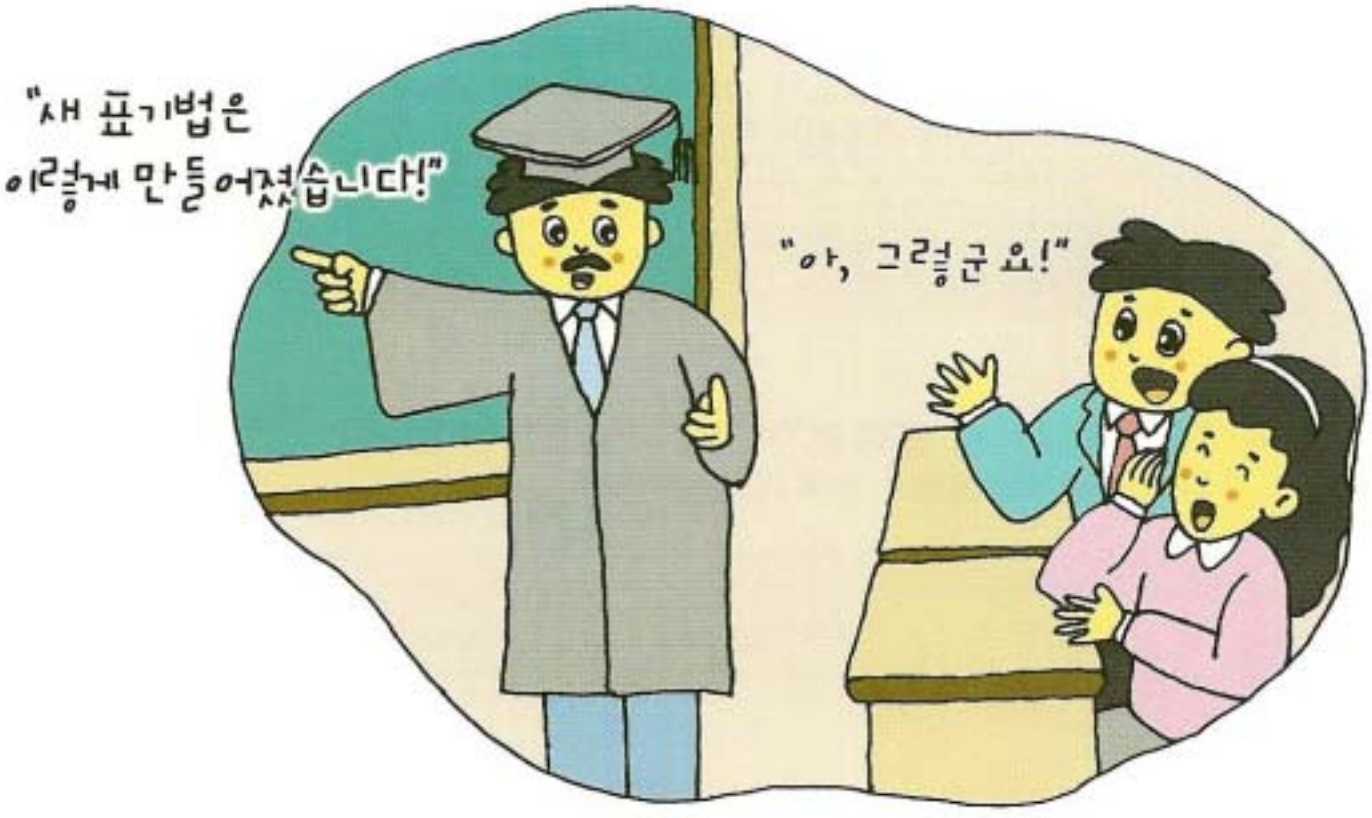
- 현행 표기법에서 어깻점을 생략할 경우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이 구별되지 않았는데 g, d, b, j와 k, t, p, ch로 갈라 표기함으로써 분명히 구별됩니다.

정주	Chongju	→	Jeongju
청주	Chongju	→	Cheongju

- **대구**(Taegu)와 **동대구**(Tongdaegu)에서처럼 같은 **대구**가 Taegu와 Daegu로 달리 적히던 문제가 없어집니다.

대구	Taegu	→	Daegu
동대구	Tongdaegu	→	Dongdaegu

3 이것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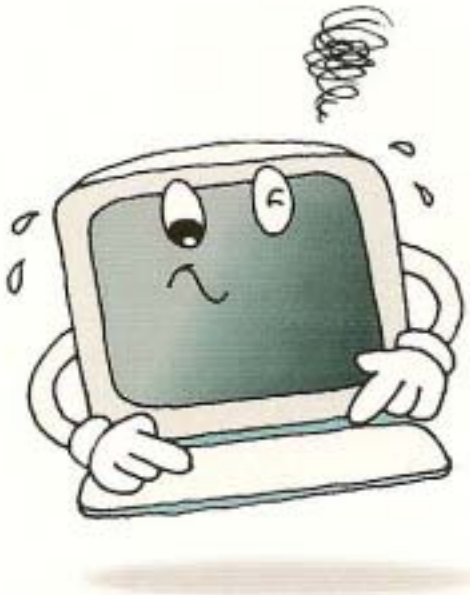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현행 표기법은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을 사실상 구별하지 않습니다. ㅋ, ㅌ, ㅍ, ㅊ은 k', t', p', ch' 인데 어깻점(')은 대중이 사용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결국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이 같습니다. 예컨대 **대식**과 **태식**이 모두 Taeshik 입니다. **대식**과 **태식**을 구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단순히 어깻점을 생략할 경우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이 k, t, p, ch로 같아져 정보 검색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씨와 **추**씨가 모두 Chu가 되어 인터넷에서 **주**씨를 찾으려고 Chu를 넣을 경우 **주**씨뿐 아니라 **추**씨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보 검색에 엄청난 불편과 낭비가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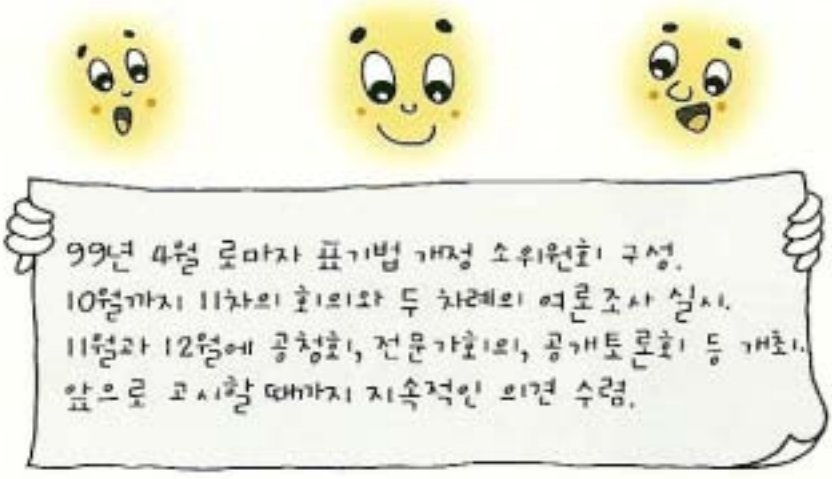
- 예컨대 '어(ŏ)'의 경우 반달표는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u, eo, o 등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행 표기법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표기법입니다. 따르고 지킬 수 있는 표기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안을 마련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1996년 후반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 이래 1997년 5월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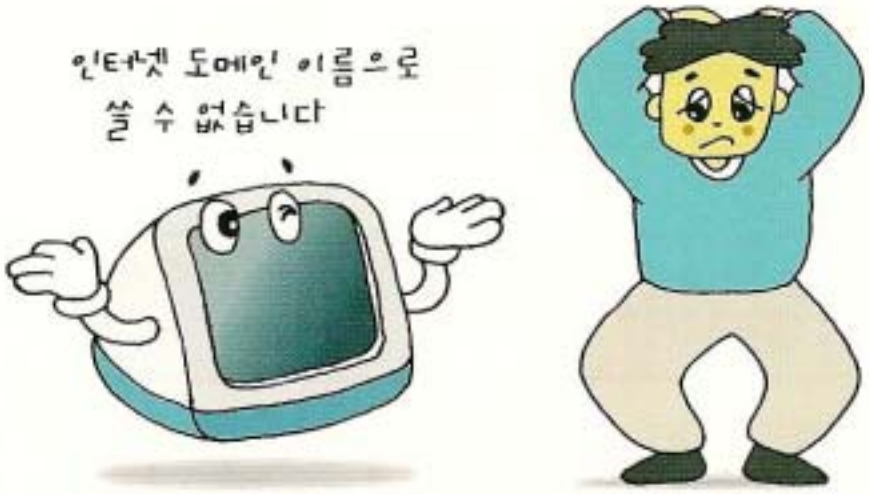
  그런데 당시 개정안은 이른바 전자법(轉字法)으로서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반대가 컸습니다. 1999년 4월에는 새로 로마자 표기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까지 11차의 회의와 두 차례의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11월과 12월에는 공청회, 전문가 회의,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시할 때까지 계속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표기법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 이번에 개정하면 정부 수립 후 세 번째 개정이니 자주 바뀌는 데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을 그냥 두고 쓰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표기법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특수 부호가 빈번히 생략되어 **청주**와 **정주**, **영식**과 **용식**이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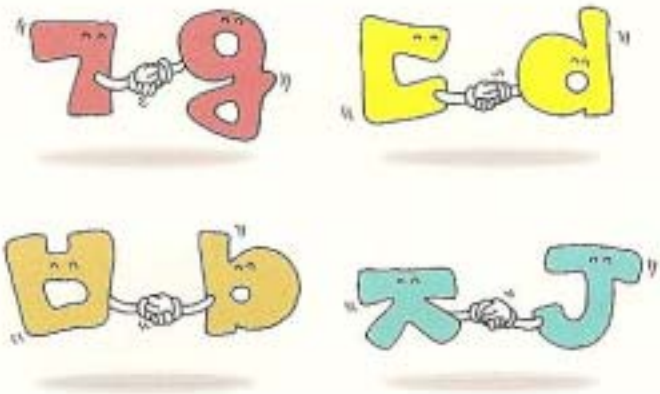
  더욱이 현행 표기법은 컴퓨터에서 쓰기가 불편하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서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등 정보화 시대에 그 문제점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개정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이렇게 불완전한 표기법을 언제까지나 쓸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 시안은 다시는 고칠 필요가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현행 표기법이 편하고 익숙하지 않습니까?

- 외국인들은 **부산, 대구, 광주** 등이 Pusan, Taegu, Kwangju로 표기된 것을 주로 보아 왔으므로 Busan, Daegu, Gwangju로 바꾸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국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ㄱ, ㄷ, ㅂ, ㅈ과 ㅋ, ㅌ, ㅍ, ㅊ을 구별하여 표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전씨와 **천**씨는 전혀 다른 성(姓)인데 모두 Chon으로 적거나, **정주**와 **청주**를 똑같이 Chongju로 표기하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겠습니까? ㄱ, ㄷ, ㅂ, ㅈ을 g, d, b, j로 적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당장은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에게도 편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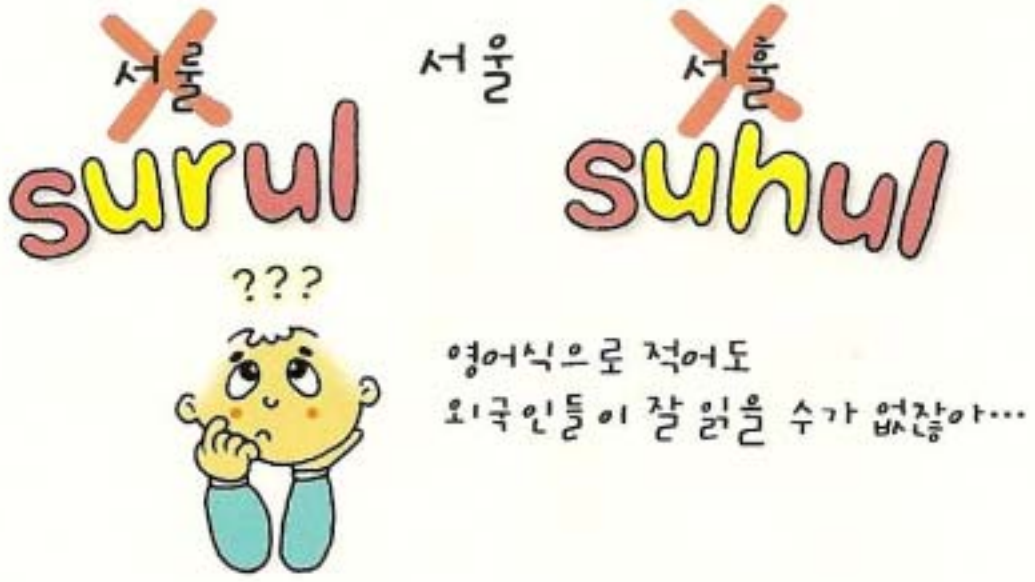
어차피 개정할 바에는 한글 철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이 좋지 않습니까?

- **속리산, 한라산**의 발음은 각각 **[송니산], [할라산]**입니다. 로마자 표기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발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Songnisan, Hallasan으로 적는 것이 Soglisan, Hanlasan으로 적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갑곶**의 경우 철자 그대로 옮긴 Gabgoj보다 Gapgot가 발음을 더 잘 나타내 줍니다.

영어가 국제어이므로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식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개정 시안에서 자음은 영어 표기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모음은 영어식으로 하고 싶어도 apple, angel, father 등 a가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어의 표기가 매우 불규칙하여 따르기 어렵습니다.

  '어'를 영어에 맞추어 u로 적으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는 '우'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들이 '어'로 읽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ur나 uh로 적으면 서울처럼 뒤에 모음이 올 경우 surul 또는 suhul이 되는데 대개 서룰 또는 서훌처럼 r나 h 발음을 하게 되어 올바른 발음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식으로 적기만 하면 외국인들이 그에 따라 잘 읽을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표기법을 개정하면 많은 비용이 들 텐데요?

- 표기법을 개정하면 도로표지판이나 지하철의 안내판 등을 다 바꾸어야 하니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표기법은 도로표지판이나 지하철의 안내판 등에서만 잘 지켜지고 있을 뿐 컴퓨터와 인터넷에서는 거의 쓰이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반쪽 표기법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로표지판뿐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 등 모든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표기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정보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고칠수록 더 경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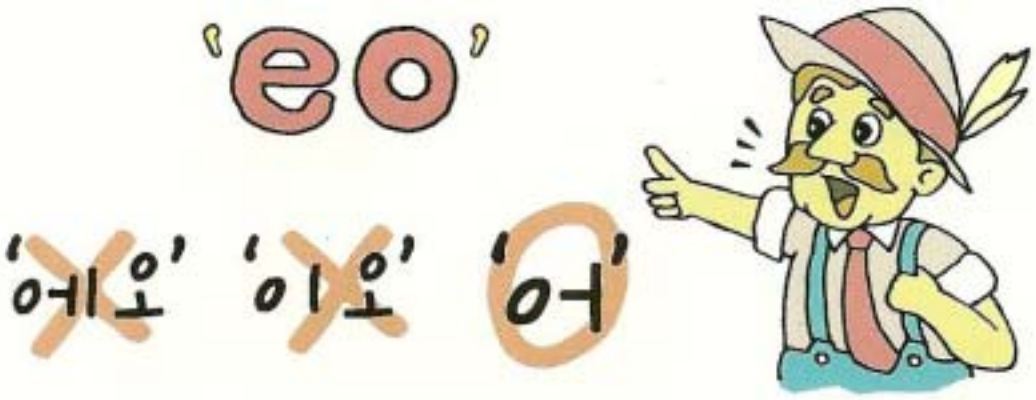
2002년 월드컵 때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 **부산, 광주, 대구**가 그동안 외국 지도에는 Pusan, Kwangju, Taegu로 표기되어 왔으므로 Busan, Gwangju, Daegu를 보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대조표 등을 마련하여 두 가지 표기가 동일 지명임을 알림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오히려 2002년 월드컵을 한국어의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을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를 eo로 하는 것은 과거에 정착되지 못하였던 안이 아닙니까?

- eo(어)는 과거 25년(1959~1983) 동안 써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표기이지만 그리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두 글자를 썼다는 점과 외국인들로부터 '어'라는 소리를 유도하기 어려웠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eo 대신 채택한 ŏ는 더욱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자의 모음 글자는 a, e, i, o, u 5개뿐이기 때문에 특수 부호를 쓰지 않는 한 어차피 국어의 모음 중에서 두 글자로 표기해야 할 것이 생겨납니다. a, e, i, o, u는 '아, 에, 이, 오, 우'로 굳어져 있으므로 '어'는 두 글자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Rousseau(루소)에서처럼 프랑스 어의 ou는 '우'이고 eau는 '오'라는 것을 배워야 하듯이 외국인들도 한국어의 eo는 '어'라는 것을 배우도록 알리고 홍보해야 합니다.



그동안 Kim으로 써 왔던 '김(金)'은 당장 Gim으로 바꿔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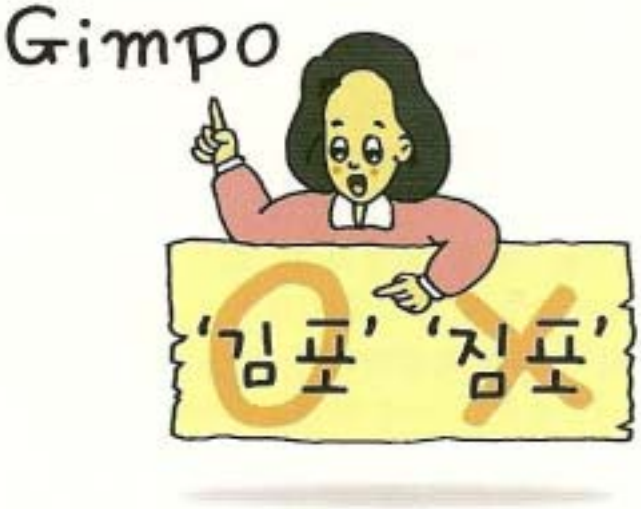
- 새 표기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인의 이름에까지 당장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이나 신용카드 등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을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쓰고 있는 개인의 인명 표기나 회사의 상호명, 단체명 등에 대해서는 관용(慣用) 표기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도 Gim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점차 성씨의 표기도 표기법에 따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치'는 kimchi로 굳어져 있지 않나요?

- kimchi는 옥스퍼드 사전 등에 올라 있듯이 이미 영어 단어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말에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로마자 표기법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표기법은 예외가 적을수록 좋으며 앞으로 gimchi를 계속 쓰면 영어 사전에 gimchi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를 Gimpo로 하면 '짐포'가 되지 않나요?

- 흔히 영어를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데, 영어에서 gi로 시작되는 말이 다 '지'로 발음되는 것은 아닙니다. gin, ginger 따위는 **진, 진저**처럼 발음되지만 give, gift, gimp, Gimson 등은 **기브, 기프트, 김프, 김슨** 등으로 발음됩니다. 외국인이 Gimpo를 **짐포**라고 잘못 발음하면 **김포**라고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짐포**라고 발음하는 외국인이 있으니까 Gimpo로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떤 언어의 표기도 외국인은 그 발음을 따로 익혀야 합니다.



'강'씨가 gang이 되어 '갱'이 되어 버리는데요?

- 어떤 표기법으로든 다른 언어에서 이상한 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표기법대로 하더라도 **진**씨는 영어로 chin(턱)이 되고 **방**씨는 pang(고통)이 됩니다. 또 외국인들도 자기들 성씨에 Butcher(푸줏간 주인), Blacksmith(대장장이), Stone(돌) 등이 있지만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특정 외국어에서 이상한 뜻이 되는 예들을 문제삼는다면 어떤 표기법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언제 확정하여 고시합니까?

- 2000년 상반기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을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므로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론 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국내외에서 공감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졌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 표기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까?

- 교육부와 협의하여 로마자 표기법이 학교 교육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인도 새 표기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법 소개 책자와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홍보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주한 외국 대사관, 미군, 항공사 등 외국 기관에서는 현행 표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지명을 표기해 왔으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대조표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외국의 지도, 백과사전 등에서 새 표기법을 따르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용례 4

개정 표기법
Dokdo
Daejeon
Daegu
Busan
Gwangju
Jeju
현행 표기법
Pusan
Taegu
Kwangju

ㄱ

갑곶	Kapkot	▶	Gapgot
강릉	Kangnŭng	▶	Gangneung
거창	Kŏch'ang	▶	Geochang
경기	Kyŏnggi	▶	Gyeonggi
고구려	Koguryŏ	▶	Goguryeo
광주	Kwangju	▶	Gwangju
금강	Kŭmgang	▶	Geumgang
김포	Kimp'o	▶	Gimpo
김해	Kimhae	▶	Gimhae

ㄴ

낙동강	Naktonggang	▶	Nakdonggang
낙성대	Naksŏngdae	▶	Nakseongdae
남대천	Namdaech'ŏn	▶	Namdaecheon
남태령	Namt'aeryŏng	▶	Namtaeryeong
남포	Namp'o	▶	Nampo
냉면	Naengmyŏn	▶	Naengmyeon

ㄷ

다도해	Tadohae	▶	Dadohae
다보탑	Tabot'ap	▶	Dabotap
달성	Talsŏng	▶	Dalseong
담양	Tamyang	▶	Damyang
대구	Taegu	▶	Daegu
대전	Taejŏn	▶	Daejeon
덕수궁	Tŏksugung	▶	Deoksugung
도봉산	Tobongsan	▶	Dobongsan
독도	Tokto	▶	Dokdo
동두천	Tongduch'ŏn	▶	Dongducheon
동해	Tonghae	▶	Donghae

ㅁ

모슬포	Mosŭlp'o	▶	Moseulpo
목포	Mokp'o	▶	Mokpo
무등산	Mudŭngsan	▶	Mudeungsan
무악재	Muakchae	▶	Muakjae
묵호	Muk'o	▶	Muko
문경	Mungyŏng	▶	Mungyeong
미륵사	Mirŭksa	▶	Mireuksa
미시령	Mishiryŏng	▶	Misiryeong

ㅂ

반포	Panp'o	▶	Banpo
백두산	Paektusan	▶	Baekdusan
백제	Paekche	▶	Baekje
벌교	Pŏlgyo	▶	Beolgyo
보성	Posŏng	▶	Boseong
봉평	Pongp'yŏng	▶	Bongpyeong
부안	Puan	▶	Buan
부산	Pusan	▶	Busan
부여	Puyŏ	▶	Buyeo
불국사	Pulguksa	▶	Bulguksa

ㅅ

삼척	Samch'ŏk	▶	Samcheok
서귀포	Sŏgwip'o	▶	Seogwipo
서당	Sŏdang	▶	Seodang
석굴암	Sŏkkuram	▶	Seokguram
성주	Sŏngju	▶	Seongju
속초	Sokch'o	▶	Sokcho
신라	Shilla	▶	Silla
신촌	Shinch'on	▶	Sinchon

ㅇ

여수	Yŏsu	▶	Yeosu
여의도	Yŏŭido	▶	Yeouido
영덕	Yŏngdŏk	▶	Yeongdeok
울진	Ulchin	▶	Uljin
을지로	Ŭlchiro	▶	Euljiro
의정부	Ŭijŏngbu	▶	Uijeongbu
인천	Inch'ŏn	▶	Incheon
임실	Imshil	▶	Imsil

ㅈ

장흥	Changhŭng	▶	Jangheung
전주	Chŏnju	▶	Jeonju
정선	Chŏngsŏn	▶	Jeongseon
제주	Cheju	▶	Jeju
조선	Chosŏn	▶	Joseon
종묘	Chongmyo	▶	Jongmyo
지리산	Chirisan	▶	Jirisan
진도	Chindo	▶	Jindo

ㅊ

천마총	Ch'ŏnmach'ong	▶	Cheonmachong
천안	Ch'ŏnan	▶	Cheonan
철원	Ch'ŏlwon	▶	Cheorwon
첨성대	Ch'ŏmsŏngdae	▶	Cheomseongdae
청주	Ch'ŏngju	▶	Cheongju
추자도	Ch'ujado	▶	Chujado
춘천	Ch'unch'ŏn	▶	Chuncheon

ㅌ

타령	T'aryŏng	▶	Taryeong
탈춤	T'alch'um	▶	Talchum
태극기	T'aegŭkki	▶	Taegeukgi
태백	T'aebaek	▶	Taebaek
통도사	T'ongdosa	▶	Tongdosa
통영	T'ongyŏng	▶	Tongyeong

ㅍ

파주	P'aju	▶	Paju
판소리	P'ansori	▶	Pansori
평창	P'yŏngch'ang	▶	Pyeongchang
평택	P'yŏngt'aek	▶	Pyeongtaek
포천	P'och'ŏn	▶	Pocheon
포항	P'ohang	▶	Pohang

ㅎ

합천	Hapch'ŏn	▶	Hapcheon
현풍	Hyŏnp'ung	▶	Hyeonpung
호법	Hobŏp	▶	Hobeop
홍천	Hongch'ŏn	▶	Hongcheon
흑산도	Hŭksando	▶	Heuksando

이 용례는 개정 시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앞으로 고시될 표기법은 이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국 립 국 어 연 구 원

- 국립국어연구원은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편찬한 최초의 국어사전인
  이 사전에는 표준어를 비롯하여 50여만 단어를
  수록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 생활에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중·하 1질/7328면/천연색 십회/216×282mm)

-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국립국어연구원 가나다전화(02-771-9909)

-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sejong.or.kr

로마자 표기법

왜 개정해야 하나?

발 행 일	2000년 1월
발 행 처	문 화 관 광 부
기 획	국립국어연구원(☎779-8736)
제 작	(주)칼라포인트(☎2237-8585)